

월요광장



노경수 광주대 도시부동산학과 교수

지난 9월 29일 광주시 광산구가 동물 장묘시설 허가를 둘러싼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다. 애완동물 장례업, 애완동물 화장장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A업체는 광산구에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건축허가, 신축, 사용승인을 마친 뒤 '동물 장묘시설(동물전용장례식장 등)'로의 용도변경 허가를 신청했다.

이에 대하여 광산구는 도시계획위원회를 세 차례 개최하여 심의했으나 부결되면서 용도변경(허가) 조건에 부적격하다는 이유로 불허가하는 처분을 하였다. 하지만 광주지법 재판부는 2022년 10월 A업체에 '용도변경 불허가 처분'을 취소하라고 주문한 것이다.

재판부가 A업체의 손을 들어준 것은 행정청의 처분이 사실 오인과 비례의 원칙 위반으로, 재량권의 일탈 및 남용한 위법성이 있다는 것이다. 사실 오인이란 '신청 시설'로부터 200m 이내 7호의 마을이 있으나 법적 기준인 300m 이내 20호 이상 인구밀집지역에 해당하지 않고, 배출가스도 기준을 충족해 A업체의 조지계획이 미흡하지 않다는 점을 들고 있다.

수필의 향기



김향남 수필가

오랜만에 나들이 계획을 세웠다. 장거리였다 당일치 기였으므로 새벽같이 출발하자고 했다. 그러자면 일찍 자 두어야 할 터였다. 몇 가지 준비를 해놓고 막 자리에 드러는데 그의 핸드폰이 울렸다. 이 시간에 누구지? 반갑잖은 표정이었지만 그의 입꼬리는 곧장 귀에 걸렸고 동시에 내 얼굴은 살짝 해졌다. 누구인지, 무슨 내용인지 안 물어봐도 뭉클할 때 때문이다.

서너 달 전까지만 해도 전혀 없던 일이었다. 같은 동료에 나란히 살고 있었으나 얼굴만 아는 정도였다. 어느 날 아내들이 모인 자리에 남편들이 끼게 되고, 여차저차 그들끼리 당구장으로 가게 되면서 급속도로 가까워진 것이었다. 또래 아이들의 아버지로, 한 여자의 남편으로, 그리고 같은 연령대라는 공통점으로 그들은 순식간에 물 만난 고기가 되어버렸다. 그로부터 '불금'이 시작되었다.

아내들의 불만이 없을 수 없었다. 할 일 다 마치고 잠 자리에 들 시간, 그 틈새를 좀 활용해 보겠다는데 뭐가 문제냐고 하면 할 말이 없었다. 그러나 사람 마음이라는 게 좀 그렇지 않은가? 공연히 고까운 마음도 드는

기고



이현진 경영학 박사·전 목포시청 국장

마치 경쟁이나 하듯 많은 축제가 열리고 있지만, 지역의 특색이 보이지 않고 경제 효과도 기대에 못 미친다는 지적도 없지 않다. 그러나 최근 흥미로운 변화가 눈에 띈다. 음식을 활용한 먹을거리, 체험거리 축제가 늘고 있다는 것이다. 주목할 만한 특징이다.

세계남도음식문화관단지, 인천영종국제음식축제, 광주김치축제, 전남세계김밥페스티벌, 전주비빔밥 축제 등이 대표적이지만, 공간적 범위를 국내를 넘어 세계 속으로 확장되는 추세다.

이런 현상은 음식이 지닌 문화적 의미뿐만 아니라 최근 '먹방'이 인기를 끌면서 음식여행이 중요한 관광 트렌드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래서인지 각 지자체에서 이러한 변화에 발 빠르게 대처하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다. 공통적인 것은 지역특성을 브랜드화 하는 능력을 키우면서, 그것을 마케팅에 연계할 시스템을 정비하는데 힘을 쏟고 있다는

도시계획의 재량권과 공무원의 전문성

또한 비례의 원칙 위반은 행정청의 처분에서 공익과 사익 상호간 비교하여 해아림(비교교량)을 정당하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첫째 내용은 '신청 시설'이 반드시 혐오시설 또는 기피시설이라고 볼 수 없고, 단순히 다수의 주민 반대나 주변 주민과 총괄에 막연하게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는 이유로 불허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둘째 '신청 시설'의 설치로 인해 환경오염이나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도 높아 보이지 않아 주변마을에 미치는 영향도 제한적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셋째 반려동물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광주시 내에서도 동물 장묘시설의 수요와 시급성이 증가하고 있어 해당 신청을 허가할 공익상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판결에서 볼 수 있듯 도시계획위원회에서의 결정을 위법하게 하는 '하지'는 계획수립 주체인 행정청에 주어지는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와 관련된 계획 재량의 문제이다. 도시계획 관련 법령에서는 '이러한 경우에는 이렇게 하여야 한다'는 식으로 구체적으로 적시되어있지 않고, '행정청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수단들을 가진다'와 같이 단지 목적을 설정하고 그 목적 달성 수단과 방법을 종합·조정하는 것은 행정청에게 일임, 즉 재량권이 주어진다.

이로써 행정청은 구체적인 도시계획을 입안·결정함에 있어 비교적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계획재량권)를 갖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행정청이 갖는 이와 같은 형성의 자유는 무제한적인 것이 아니라 그 도시계획에 관련된 사람들의 이익을 공익과 사익 사이에서는 물론이고

공익 상호간과 사익 상호 간에도 정당하게 비교하여 측정(비교교량)해야 한다는 제한이 있다. 따라서 행정주체가 도시계획을 입안·결정함에 있어 이익형량을 전혀 행하지 아니하거나 이익형량의 고려 대상에 마땅히 포함시켜야 할 사항을 누락한 경우 또는 이익형량을 하였으나 정당성·객관성이 결여된 경우에는 그 도시계획 결정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게 된다.

재량권은 도시계획 행정에서는 필수불가결한 도구이며, 그 도구를 활용하는 공무원의 역량문제가 핵심이다. 계획재량과 관련해 각종 계획의 수립 및 결정과 정에서 볼 수 있듯이 공무원에게 주어지는 재량의 범위가 넓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보다 전문성을 갖춘 공무원이 재량권을 행사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도시계획 전담부서 근무자가 순환보직에서 벗어나 장기 근무할 수 있도록 광주시의 '전보 제한 완화 제도'를 다시 살리는 것도 필요하다.

광산구의 동물 장묘시설(화장장) 불허가 처분이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로서 광주지역에 첫 동물 장묘시설이 들어설지 관심이 쏠린다. 광산구의 입장에서 법원의 판결을 수용해서 이 시설을 허가할 수도 있고, '광범위한 재량'을 근거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새로운 사유를 들어 불허할 수도 있을 것이다. 재량권이 많이 주어질수록 효율성, 구체적 타당성을 기할 수는 있지만, 업무처리의 통일성 그리고 법적 안정성은 낮아진다고 볼 수 있다. 결국 합리적인 도시계획은 재량권을 행사하는 공무원의 전문성이 관건이다.

말의 귀환

데다 아랫집은 주말부부지 않은가 말이다. 그런 사정은 아랑곳도 없는 듯 그들의 회동은 빠짐없이 계속되었다. 말 그대로 '당구 한판 치고 간단히 생맥주 한잔 마셨을 뿐'인데 팔딱 날을 새기 일수였다.

역시나 오늘도 삼경을 넘고 사경도 넘어서야 뽀뽀뽀뽀 문 여는 소리가 들렸다. 이채나저채나 비몽사몽 중에 있던 나는 반사적으로 자리에서 일어났다. 문은 단번에 열리지 않았다. 몇 번을 거듭한 끝에야 겨우 그가 들어왔다. 아, 미안미안. 빨리 올라고 했는데 어찌구저찌구..... 왜 이렇게 늦었나. 물음 따윈 굳이 할 필요도 없었다.

"아이구, 참말로 호랭이 물어가네."

내 입에서는 등짝 스매싱을 능가하는 속사포가 발사됐다. 비틀비틀 그는 침실로 들어가고, 순간 나는 뭔가에 붙들린 듯 고개를 가웃했다. 호랭이 물어가네? 기본이 묘했다.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호랭이'가 벌써 내 앞에 나타난 것이었다. 뜬금없이 튀어나온 말이 낯선 듯 낯이 익은 듯 신기하기만 했다. 그 끝에 엄마가 보였다. 그것은 엄마의 말이었다. 아니 그 시절 어디서나 들을 수 있는 흔하디흔한 상투어였다. 여자하면 어이구 호랭이 물어가네잉, 호랭이 물어가고 자빠졌네, 호랭이 물어갈 × 등등의 말들이 자동 발사되곤 했다.

'호랭이...?'로 시작되는 말들은 어떤 상황이 너무 어이없거나 갑작스러울 때, 뜻밖의 일이거나 엉뚱하다 싶을 때 주로 사용되는 표현이었다. 기쁨과 슬픔, 반가움, 놀람, 비아냥, 빈정거림, 아쉬움 등등 다양한 감정을 나타내는 표현으로도 애용되었다. 사람들은 '호랭이(호랑이가 아니고)'를 내세워서 말맛을 살리고, 그

때그때의 상황이나 분위기 혹은 느낌을 드러냈으며, 쌓인 것들을 풀어내고는 했다.

엄마에게는 '호랭이'를 불러낼 일이 자주 있었다. 고지식하고 무뚝뚝한 남편에 역센 자식들에 매일매일 허덕이는 노동에 하루도 편할 날이 없는 엄마는 애꿎은 '호랭이'라고 불러내야 화소연이라도 할 수 있었다. '호랭이'를 통하여 답답함을 풀고 화를 삭였으며 평정심을 되찾으셨을 것이다. 옆집 상수 엄마도 그랬다. 인근에서 알아주는 명문고를 나왔다는 상수 아버지는 이도 저도 아닌 술주정뱅이었다. 그 집을 지날 때면, '아이고, 내 팔자야. 대롱한 호랭이는 똥을 먹고 사나 몰라...' 상수 엄마의 푸념을 심심치 않게 들을 수 있었다.

생각해 보면 사람들 입살에 '호랑이'만큼 자주 오르내린 동물도 없지 않다. 실제로 호랑이는 한반도의 숲과 자연을 지배하는 강력한 포식자였다고 한다. 생태환경의 변화와 무분별한 사냥, 식민지 시기 해수구제(海墾溝築)라는 명목으로 행해진 대대적인 소탕 정책 등으로 인해 이 땅의 호랑이들은 끝내 멸종하고 말았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우리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의식 속에 수많은 이야기와 그림과 말들을 만들어내며 뿌리 깊은 흔적을 남겨 놓지 않았는가.

요즘 들어 떠나신 지 오랜 엄마의 말들을 자주 마주친다. 그 말이 놓인 순간의 상황이며 장면이며 표정까지 또렷이 되살아나 감쪽 놀랄 때가 많다. 어디에 박혀 있었는지, 나도 모르게 튀어나온 말들을 따라 들어가 보면, 거기 몹시도 반갑고 그리운 것들이 애뜻하게 피어나고 있다.

'미식 도시' 목표 9미(味)의 브랜드화

점이다. 먼저 관광의 흐름을 살펴보자. 최근의 추세는 힐링, 먹거리관광 쪽으로 주제가 변하고 있다.

넷플릭스 오리 경영 프로그램 '흑백요리사'가 선풍적인 인기를 끌면서 전 세계인에게 다양한 불거리와 감동을 선사하고 있는 것도 그 이유 중 하나다.

또한, 개별여행이 보편화되고 있다. 개별여행객들은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해 최저가 항공권을 예약하고, 일상화된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하여 관광지과 식당을 직접 찾아간다.

항공료나 숙박비는 아끼더라도 음식만큼은 그 지역의 오랜 관습이 배어있는 최고의 맛 집에서 먹으려는 마니아들이 늘고 있다. 여행의 중요한 목적이 음식 체험으로 바뀌고 있다는 의미다. 이런 변화는 국제관광 도시를 지향하는 목표권에 많은 시사점을 던져 준다.

목포는 '맛의 도시'로 유명하다. 세발낙지와 홍어, 민어 등 9가지 재료를 사용한 목포 9미(味)는 빼놓을 수 없는 특화 메뉴로 즐겨 관광객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고 있다.

그러나 이런 것이 문화의 한 분야로 자리 잡아 미래 관광산업을 주도하기 위해서는 이에 걸맞은 새로운 비전이 필요한데, 크게 두 가지 분야를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된다.

우선 달라진 소비 패턴에 맞는 새로운 상품을 내놓아

야 할 때다. 음식에 갖든 문화적 키워드를 읽어내고 지역 여건과 관광 수요를 고려한 특색 있는 음식개발과 맞춤형 홍보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목표하면 떠오르는 음식 브랜드를 개발하고 그 이미지를 외부에 알려줘야 한다.

낙지, 민어 등 목포 9(味)가 모두 맛있다는 포괄적인 개념보다는 지역 이미지와 부합되는 통합된 콘셉트를 만들고 그걸 기본 전제로 하여 음식관광으로 연결시켜야 한다. 여러 가치를 내세워 정체성을 모호하게 만들기보다는 다가서기 쉬운 하나의 브랜드를 내세워 마케팅을 전개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뜻이다.

아울러 외국인들의 관심을 볼 수 있는 독특한 테마 발굴이 절실하다. '떡방'이란 고유 콘셉트가 세계로 퍼지면서 한국 음식에 대한 외국인의 관심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효율적인 외국인 유치 전략 마련과 함께 개별여행객을 위한 편의제공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

데이터·인공지능을 활용한 관광 실크로드를 구축하여 지역의 장점을 홍보하는 물론 외국인들이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체험하고 싶어 하는지를 잘 살펴 글로벌 차원에서 손님 맞을 수용 태세를 갖추는 것도 필수적이다.

이런 때 일수록 냉철한 현실 진단을 통해 해결해야 할 과제를 풀어나가면서 국제관광도시로서의 위상을 어떻게 재정립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함께 해야 할 시점이라 생각된다.

社說

전남 해양자원 차별화된 지역발전 전략 찾아야

전남의 해양자원은 그야말로 무궁무진하다. 지난 2021년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된 한국의 갯벌 가운데 전남이 44%를 차지한다. 이중 신안 갯벌은 총 1773㏊에 탄소저장량이 약 13억 톤으로 추정되는데, 탄소배출권 시장에서의 가치를 추정하면 생태적 가치는 약 56조 원에 달한다고 한다. 더욱이 2000여개에 달하는 섬, 아름다운 풍경을 지닌 바닷가와 정경해산물 등 해양(관광·문화·산업) 자원은 지역발전의 토대가 되는 자원이라고 할 수 있다.

해양자원을 관광화하고 산업화해 전남발전의 바탕으로 삼기 위한 포럼이 열렸다. 전남도가 주최하고 광주일보가 주관한 '전남관광개발 포럼'이 최근 영암군 현내 대바이리조트 호텔에서 '신해양 관광시대'를 선도하다:전남의 비전'이라는 주제로 개최됐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 이후 전 세계적으로 친환경 해양 관광이 글로벌 해외 여행 트렌드로 부각된 점, 레저와

문화 체험을 병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증가한 점 등 여행 수요의 변화가 전남에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전남은 어느 지역보다도 풍부한 자연경관과 문화적 자산을 가진 다도해를 적극 활용해 섬·관광-해양레저-문화 체험이 복합적으로 가능하도록 기반시설을 국내외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해 국내의 관광객들을 유인해야 할 것이다. 특히 전남은 해양자원을 중심으로 해양관광 분야에서 가장 우월한 위치에 있는 만큼 갯벌을 중심으로 숙박시설 확충과 관광 코스 개발을 서둘러야 한다.

이 같은 사업을 추진하더라도 해양 관광 관련업 경우는 정부 6개 부처와 관련된 '전남관광개발 포럼'이 최근 영암군 현내 대바이리조트 호텔에서 '신해양 관광시대'를 선도하다:전남의 비전'이라는 주제로 개최됐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 이후 전 세계적으로 친환경 해양 관광이 글로벌 해외 여행 트렌드로 부각된 점, 레저와

목포대·순천대 통합 합의...30년 숙원 풀었다

주말과 휴일 사이 국립 목포대와 순천대가 통합에 전격 합의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통합 합의는 김영록 전남지사가 제시한 1차 공모 마감일인 지난 15일 밤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두 대학은 지난달 초부터 실무협의회를 꾸리고 본격적인 협상에 나섰는데 열두 차례 만남 끝에 합의에 이를 만큼 과정은 순탄하지 않았다.

합의의 골자는 '대학 통합'과 '통합 의과대학 설립'이다. 통합 대학 명칭으로 의대를 설립해 두 지역에서 의료 인력을 양성하고 대학병원을 두 지역 모두에 두기로 했다. 합의 내용에서 알 수 있듯 두 대학 통합의 가장 큰 의미는 전남 도민들의 30년 숙원인 국립 의대 설립의 첫걸음을 뒀다는 데 있다. 의대 유치를 놓고 빚어졌던 전남 동·서부권의 갈등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게 됐다는 의미도 있다.

통합 과정에서 김영록 전남지사의 역할이 컸다고 할 것이다. 중재를 통해 통합을 이끌어 냄으로써 소지역주의와 편가르기

식 정치를 극복하는 계기를 마련했기 때문이다.

두 대학은 올해 말까지 교육부에 통합 신청서를 제출하고 2026년 3월 통합대학 출범을 목표로 하고 있다. 통합대학 출범과 함께 200여 명 규모로 의대 신입생 모집도 계획하고 있다. 이제 남은 것은 정부가 약속한 대로 정원 배정부터 전남권 국립 의대가 안착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을 실행하는 것이다.

흡수 통합이 아닌 동등한 상태에서의 균형 방식 통합이니 만큼 느슨한 통합이 될 수도 있다. 진행 과정에서 속도가 더디고 세밀한 부분에선 마찰이 날 수도 있다. 하지만 '시작이 반'이라는 말처럼 일단 맞을 울리고 항해하면서 문제점은 고치고 조율해 나가면 될 일이다. 공동 의대 신설에서 시작된 목포대와 순천대의 통합이 장기적으로는 초일류 거점대학의 초석이 되도록 힘을 모아 가길 바란다.

無等鼓

정조 임금의 자신이 출세한 문제로 구일제(九日製)를 시행했다. 구일제는 9월 9일 성군관 유생을 대상으로 치르던 시험이다. 어제(御題)는 '포족불언 흥공장장' (抱蜀不言鴻臚鬚鬚). 임금이 공경하는 자세와 예(禮)로써 말 없이 백관을 이끌면 큰 기러기가 날개를 활짝 펴고 높이 날아오르는 것처럼 정사가 자연스럽게 이뤄진다는 뜻이었다. 정조는 평소 임버릇처럼 이 글을 되새겼는데 시험을 앞두고 때마침 기러기 울음소리를 듣고 문제로 낸 것이었다.

뜻밖에도 유생들이 백지답안을 낼 정도로 시험 난도가 매우 높았다. 문

다. "그대들이 그토록 고루한 자들이 줄 일찍 알아들었다면 이해하기 어렵지 않고 알기 쉬운 한 구절의 말을 어찌 아껴 게시하지 않았겠는가"라고 자책도 했다. 정조는 "3일 기한을 줄테니 오늘의 수치를 씻도록 하라"며 제시함을 지시했다.

2025학년도 수능이 지난 14일 치러졌다. 지난 6월 모의평가가 역대급으로 어려웠고 9월 모의평가가 너무 쉬웠기 때문에 실제 수능 난이도가 주목됐다. 가채점 결과 국영수 등 주요과목 난도가 높지 않은 시험이었던 것으로

수능 난이도

분석되고 있다. 선택과목인 사회탐구와 과학탐구를 이해해야 글을 쓰는 시험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크게 실망한 정조는 친필로 쓴 훈시를 내려 공부 좀 하라고 꾸짖는다. 훈시문은 '정조어필-시국제임장제생' (正祖御筆-示朝制入場養生)으로 명명돼 보물로 지정돼 있다. 정조는 훈시에서 "그대들은 예로부터 지금까지 어제의 뜻을 이해하지 못해 백지답안을 냈다는 일을 후사라도 들은 적이 있는가. 문제가 어려운 것도 아닌데 더 말해 무엇하겠는가. 다사(多士)의 실력이 다듬어지지 않은 것은 바로 나의 수치"라고 개탄한

은 시험이었던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선택과목인 사회탐구와 과학탐구 영역의 난도는 상대적으로 높아 수험생들이 고전했다는 후문이다. 결국, 올해도 선택과목 유불리 논란이 되풀이될 조짐이다. 최상위권 수험생은 주요 과목 한 두 문제로 과목별 등급과 입시 성패가 갈릴 전망이다. 수능은 문제가 쉽게 출제되면 몰수승, 어려우면 몰수승이라며 늘 논란이 된다. 난이도 논란은 수능의 족쇄가 아닐 수 없다. 오죽하면 수능 출제위원들이 '난이도 조절은 신의 영역'이라고 할까.

/윤영기 사회·체육담당 부국장 penfoot@

Table with 2 columns: English title 'The Kwangju Ilbo' and Korean title '光州日報'. It contains contact information for the newspaper, including phone numbers, fax numbers, and website details.